

# 李相高의 民族運動과 後人 論贊

박 결 순\*

- 
- I. 머리말
  - II. 李相高의 民族運動
  - III. 後人 論贊에 나타난 評價
  - IV. 맺음말
- 

## I. 머리말

溥齋 李相高(1870~1917)은 한국근대사에서 매우 커다랗고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민족운동에 투신한 이래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사거할 때까지 남·북만주와 연해주는 물론, 유럽과 미주 일대에 미치는 광역을 무대로 하여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그의 민족운동은 1906년 망명 이후에 본격화하였으니, 실제 그가 민족운동에 헌신한 것은 10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서전서숙 건립과 북간도 민족교육, 헤이그 사행과 구미 순방 외교, 독립운동기지건설, 13도의군·성명회·권업회·대한광복군정부·신한혁명단 등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와 단체에 참여하거나 주도하였다. 더구나 초기 남·북만주와 연해주지역의 독립운동은 이상설을 제외하고는 그 시원과 정황을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상설에 대한 후인 논란은 그 어떤 인물 못지않게 많다. 후인 논란의 공통점은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분야를 막론하고 최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한국독립운동사선상에서의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중근·박은식·정인

---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보·장석영·조성환·조완구·황현 등 저명한 독립운동가와, 李範世·李重夏·李建昇·李建芳·李喜鍾·安瀟·李明祥·管雪齋 및 베델·헨버트 등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물들이 그에 대한 논찬을 남겼다.

1975년 5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골에 그의 숭모사인 숭렬사가 건립되고,<sup>1)</sup> 동년 9월 외솔회가 나라사랑 제20집을 이상설 특집호로 구성하며 그는 사회와 학계에서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sup>2)</sup> 이상설에 대하여는 윤병석의 일련의 연구가 독보적이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설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와 역사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 까닭은 첫째, 망명 이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록이 단절되어 망명 이전의 상소문 등 일부 자료만 전해지는 점, 둘째, 그가 임종을 앞두고 유물과 유문을 소각하도록 유언함으로써 스스로의 기록과 행적을 삭제하였고, 그나마 일부 남아있던 자료마저도 분실한 점, 셋째, 그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가한 민족운동에서 주역의 자리와 공명을 남에게 양보하거나 헤이그 특사의 경우처럼 이준이 부각된 경우 등의 요인 때문이다.<sup>4)</sup>

본고는 이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상설의 민족운동과 후인 논찬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민족운동을 제1기 망명 이전의 국권회복운동, 제2기 헤이그 사행과 구미 순방 외교, 제3기 연해주 망명과 독립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이어서 이상설에 대한 후인 논찬을 인품에 대한 평가, 학자로서의 평가, 독립운동가로서의 평가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이상설과 함께 활동하였던 후인의 논찬은 부족한 이상설 연구의 귀중한 방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崇烈祠는 1997년 3월 2일 생가인 진천군 덕산면 산척리 산적마을로 옮겨 중건하였다.  
2) 외솔회, 『나라사랑』 제20집 ‘보재 이상설 선생 특집호’, 1975.  
3) 尹炳奭, 『李相高傳』, 一潮閣, 1984. 1998년에는 이상설의 遺文으로 海牙日記 초록인 『李相高日記抄』 등의 자료를 추가하고 전기 부분에서 「李相高의 遺文과 李僑烈士」(제15장)를 보완하여 『增補 李相高傳』을 발행하였다.  
4) 尹炳奭, 『增補 李相高傳』, 2~3쪽.  
5) 지금까지 이상설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편년순의 개조식 서술 위주였다. 그런데 후손으로서 그의 자료를 모은 李完熙는 「傳記草稿」(溥齋 李相高先生傳記抄)에서 그의 민족운동을 “... 선생의 독립운동은 세 단계로 노나 볼 수가 있다. 그 첫 단계는 亡國勒約을 恨死코 저지하고자 벌였던 국내 구국抗爭이요 둘째로는 방향을 국외로 돌려 국권을 회복하려든 밀사 결행과 列強 순방이며, 끝 단계로는 露領으로 망명하여 露滿國境을 據點으로 본국과 해외에 산재한 僑胞를 규합하여 교포의 自活策과 教育産業 養兵 등 독립세력의 태반을 구축하기에 불철의 경륜과 심혈을 다 한 빛나는 그 行蹟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고 하여 세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尹炳奭, 『增補 李相高傳』, 188쪽). 본고는 이상설의 민족운동을 3기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 II. 李相高의 民族運動

### 1. 망명 이전의 국권회복운동

#### 1)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 반대 상소투쟁

이상설은 1894년 조선왕조 최후의 과거인 甲午 丙科에 급제하였고, 翰林學士와 世子試讀官으로 관료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그는 1905년 11월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기까지 左秘書院郎·성균관 관장·한성사범학교 교관·탁지부 재무관·궁내부 특진관·학부협관·법부협관 등의 벼슬을 거쳤다. 그런데 그는 그 때마다 實職에 출사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1개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도 많았다.<sup>6)</sup> 이는 동학혁명, 청일전쟁,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갑오경장 등 극도의 국내 정정의 불안과 외세의 침투 등이 그로 하여금 적극적인 출사의 길을 접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1904년 6월 6일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공사 林權助를 통해 한국 정부에 ‘荒蕪地開拓權要求契約案’을 제시하였다. 이상설은 이에 분연히 반대하여 6월 22일 正二品通政大夫 朴勝鳳과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다.

이상설은 이 상소문에서 토지는 국가의 근본이고 재물은 민생의 근본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국가가 본래 빈약하여 재원과 토지가 부족하니 외국에 양여하지 않은 것은 지킬 방도를 생각하고, 이미 양여한 것은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을 위시한 서구 열강들의 이권 요구는 나라가 없어지도록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국가를 없애면서까지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특히 그는 조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도 해로울 것이 없고 오히려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의 행위를 ‘賣國’이라고 규정하고 자국 백성은 파리하게 만들면서 외국인은 살찌게 하고 본국을 팔아서 외국인을 살찌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인이자 조종과 임금에 대한 죄인이라고 단언하였다.<sup>7)</sup> 그는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실업학교를 세우고 낭비를 절약하며 기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국가 발전을 위해 당면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8)</sup>

6) 그는 左秘書院郎·성균관 관장·한성사범학교 교관은 1개월 만에 사임하였고, 탁지부 재무관도 2개월 만에 사임하였다.

7)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7~29쪽.

8) 그는 국가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책으로 “... 爲今日之計 只在上下勵圖亟廣實業學校 用究其種藝 開贍力購器之策其他便民利國之政 綱舉日張 唯日孜孜 務收實效 ...”라고 제시하였다.

이 같은 이상설의 상소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해 가장 논리정연하고 단호하며 대안까지 제시된 것으로서, 이후 조야의 반대 상소를 선도하였다. 그리고 輔安會(保安會)가 소집되어 연일 일제 침략에 대한 규탄대회가 열리게 하는 등 반대 여론을 선도하였다.<sup>9)</sup> 결국 광무황제는 이상설의 상소를 嘉納하여 ‘光武嘉之’란 말까지 전하기에 이르렀다.

보안회는 일제의 압력으로 해산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비밀결사체의 존재를 갈구하는 보안회 세력은 大韓協同會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설은 대한협동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당시 대한협동회의 부회장은 李儁, 총무는 鄭雲復, 평의장은 李商在, 서무부장은 李東輝, 편집부장은 李承晚, 지방부장은 梁起鐸, 재무부장은 許蔦로 구성되었다.<sup>10)</sup> 대한협동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 실상 등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나, 당시 국권회복운동과 이후 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망라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설이 이 같은 대한협동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국권회복운동기에 그의 위상을 잘 알려준다.

결국 이상설은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대한 반대 상소투쟁을 전개하며 국권회복운동의 전면에 나섰고, 대한협동회의 회장에 추대되며 일찍이 독립운동계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을사늑약 반대 상소투쟁

한국 침략을 위한 치밀한 계략 아래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대신회의를 강요하고 이른바 을사늑약을 강제하였다. 이상설은 을사늑약 강제 보름 전인 11월 1일 36세의 젊은 나이로 의정부 참찬에 발탁되었다. 따라서 그는 대신회의의 실무 담당 관리로서 당연히 이날의 대신회의에 참가하여야 했으나, 일제의 제지로 참가하지 못하였다.

이상설은 감금당하였다 풀려나온 참정대신 韓圭설을 만나 손을 잡고 망국의 사태를 목 놓아 슬피 울었다고 한다. 그는 韓圭설이 최후까지 ‘否字’만 쓸 뿐 자결로서 막아내지 못한 것과, 과감한 민영환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二大恨’으로 여겼다.<sup>11)</sup>

을사늑약의 강제에 실망한 이상설은 곧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와 슬퍼하며 自靖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인준 절차가 남아 있음을 안 이상설은 아직 길이 남아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곧 이 늑약의 파기를 위한 상소를 올렸다. 다음의 구절은 이 상소문의 내용과 이상설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9) 尹炳奭, 「日本人의 荒蕪地開拓權 要求에 대하여」, 『歷史學報』 第22輯, 1964. 231~243쪽.

10) 柳子厚, 『李儁先生傳』, 東邦文化社, 1947 참조.

11) 李相稷, 『韓末雜報』, 第4章 ‘各疏之聲討賣國’.

“ … 대저 그 조약이란 인준을 해도 또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인준을 하지 않아도 또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나라가 망할 바에는 차라리 殉社의 뜻을 결정하여 단연코 거부하여 列祖列宗의 폐하께 付畀하신 重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臣은 비록 한번 죽는다 하더라도 매국적들과 함께 조정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폐하께옵서 만일 臣의 말이 그르다 하옵시거든 곧 臣을 베어서 諸賊에 謝하시고 臣의 말이 옳다 하옵시거든 곧 諸賊을 베어서 국민들에게 謝하시옵소서. 신이 드릴 말씀은 이 말 뿐이요 더 말할 바를 모르겠나이다.”<sup>12)</sup>

이 상소의 핵심은 을사늑약은 인준을 해도 나라가 망하고 인준을 하지 않아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며, 황제에게 이왕 망할 것이면 단연코 인준을 거부하고 차라리 종묘사직을 위해 殉社하라는 충언은 이상설의 단호하며 명확한 사태 판단력을 보여준다.<sup>13)</sup> 이 상소는 ‘자고로 국가의 난세를 당하여 임금께 직언을 아뢰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사직을 위해 순사하라는 뜻으로 임금께 아뢰는 이는 오직 이상설 뿐’이라는 칭송을 받았다.<sup>14)</sup>

이상설의 상소는 11월 18일에 이어 19일·22일·24일, 12월 8일 등 5차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후 그는 관직을 버리고 본격적인 조약 파기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sup>15)</sup>. 그는 조약의 백관과 유생들과 연명하여 상소를 올렸다. 먼저 그는 조병세를 疏頭로 하여 상소를 올렸고, 그가 자결 순국한 이후에는 민영환을 소두로 하여 복합 상소를 주도하였다.<sup>16)</sup>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제출한 「控告詞」에서 을사늑약 반대상소와 서울 등지에서 전개된 반대투쟁을 상술함으로써 늑약의 불법 부당성과, 폐기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을사늑약 강제와 관련된 여러 문서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상설의 목적담을 기초로 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조병세에 이어 민영환마저 자결 순국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11월 30일 아침에 평리원에서 복합 상소를 마치고 종로 거리로 뛰쳐나가 민중에게 통곡을 하며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 … 現今 時代는 國家가 自立치 못하고 他國保護下에 歸하면 國家가 顛覆할 뿐 弗啻라 全國

12)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08쪽.

13) 손보기, 「보재 이상설 선생의 독립정신」, 『나라사랑』 제20집, 72쪽.

14) 『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24일자 「讀李參贊疏」.

15) 후임으로 李商在가 임명되었다(『大韓帝國官報』, 第3320號(1905. 12. 11), 第3323號(1905. 12. 14)).

16)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제출한 「控告詞」에서 을사늑약 반대상소와 서울 등지에서 전개된 반대투쟁을 상술함으로써 늑약의 불법 부당성과, 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人種이 舉皆滅亡하나니 嗟我國同胞人民은 此를 深思하라 今閔輔國의 自盡之日이 卽我全國人種의 盡滅之日이니 余는 閔輔國 一人의 死함을 爲하야 悲吊함이 아니라 我全國人民의 盡滅할 情境을 爲하야 悲吊하노라 하고 痛哭而歸하얏더라 ...”<sup>17)</sup>

이 연설을 마친 후 그는 머리를 땅에 짚어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 이상설이 민영환의 뒤를 따라 자결하였다는 소문도 나돌았다.<sup>18)</sup> 동지들에 의해 집으로 옮겨진 그는 조상을 대할 면목이 없다며 음식을 끊고 실성한 사람이 되어 두문불출 한 채 수개월을 지냈다고 한다.<sup>19)</sup>

이상설의 처절한 을사늑약 파기투쟁은 전국 유생의 상소를 선도하였고, 급기야 의병의 봉기를 촉발하였다. 한편 비밀결사가 속출하고 민중대회가 열려 민중 항일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되었다. 일제측 자료에 의하면 “排日派에 속하는 한인들이 危激한 격문을 붙이고 가두에서 반대 연설을 함으로써 민심을 선동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들 중 관직에 있는 자는 徒黨을 이끌고 대궐에 엮드려 상소를 하고 일시 민심을 격양시켜 폭민이 각지에서 봉기하여 新約의 파기를 절규하고 ... 경성에서 排日陰謀團을 조직하여 13도에 향하여 일본 세력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후 5년간에 걸쳐 조선 각지에서 여러 차례의 변란이 발생하여 ...” 운운하여 이상설을 위시한 을사조약 파기투쟁이 반일정서를 고양하고 의병투쟁을 촉발하여 결국 일제 통감정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sup>20)</sup>

이로써 보면 이상설은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 반대 상소투쟁을 통해 일제의 침략적 본질을 간파하였고, 을사늑약 반대 및 파기투쟁을 통해 민족운동의 선도적 지도자로 부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을사늑약 반대 상소 및 파기투쟁 직후 이상설은 이회영·이동녕·장유순·이시영 등과 의논하며 국외 망명과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상설은 1906년 4월 18일(음) 양부 李龍雨의 기제를 마치고 이동녕과 함께 망명길에 올라 상해를 거쳐 노령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그는 망명에 앞서 葍洞의 자택을 처분하였다. 이는 그의 망명이 조국 광복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결행된 것임을 짐작케 해준다.<sup>21)</sup>

17)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일자와 박은식의 『韓國痛史』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8) 당시의 정황은 趙琬九의 『李相高, 溥齋小傳』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梅泉野錄』에도 기술되어 있다. 또한 조약 파기상소를 위해 상경하였던 金九도 이 정황을 목도하고 『白凡逸志』에 기술하였다.

19) 강상원,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유업」, 『나라사랑』 제20집, 78~79쪽.

20) 金正柱 編, 『韓國統治史料』 수록 朝鮮總督府, 『朝鮮獨立運動問題』 참조.

21) 李觀植, 『友堂李會榮先生實記』 참조.

## 2. 헤이그 사행과 구미 순방 외교

### 1) 瑞甸書塾의 설립과 민족교육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했던 이상설은 북간도에서도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던 연길현 용정으로 왔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큰 집을 매입하여 학교 건물로 개수하고 瑞甸書塾이라 불렀다. 속장은 그가 맡았고 이동녕과 정순만이 운영을 맡았는데, 경비는 전적으로 그가 부담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sup>22)</sup> 서숙의 건물 규모는 70평 정도였고, 처음에 인근의 한인 청소년 22명을 모아 開塾하였다.<sup>23)</sup> 계봉우는 서전서숙을 ‘壘北教育의 起源’이라고 평가하며,<sup>24)</sup> ‘태평천국 망명객’이 뿌린 씨가 결국 효력을 발하여 만주족에게 빼앗겼던 강토를 다시 회복하는 열매가 되었다고 찬양하였다.<sup>25)</sup> 즉, 서전서숙을 북간도 민족교육의 요람으로 본 것이다.

서전서숙은 처음에 학생들을 甲·乙班으로 나누었는데, 갑반은 고등반이고 을반은 초등반이며 갑반에는 20세 전후의 생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상설은 갑반의 산술을,<sup>26)</sup> 황달영은 역사와 지리, 김우용은 산술, 여준은 한문·정치학·법학 등을 가르쳤다. 그런데 중점을 둔 교육 과목은 신학문과 함께 당연히 철두철미한 민족교육이었다. 곧 서전서숙은 이름은 서숙이었지만 실상은 독립군양성소나 다름없었다.<sup>27)</sup>

서전서숙의 운영 실태는 1907년 8월 통감부 간도과출소를 개설하고 서전서숙을 ‘시국상 의 심할 점이 있어 취조’한 결과를 韓國統監代理 長谷川好道を 통해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日軍中佐 齋藤季治郎의 조사 보고가 상세하다.

이 보고는 서전서숙이 폐교하기 1~2개월 전에 시행된 것으로서, 설립·취지·중요한 직원과 경력·資生·교과목과 생도수·시국에 대한 직원의 태도·서숙의 장래 등에 대해 서전서숙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들은 서전서숙은 1906년 12월, 李相高·李亮(李東寧)·田共達(黃達永)·洪昌燮·王昌東(鄭淳萬)·金東煥 등 6인이 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주창자를 이상설로 보았다. 또한 설립 취지는 간도의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

22) 玄圭煥, 『韓國流移民史(上)』, 465~466쪽.

23) 金成俊, 「3·1運動以前 北間島의 民族教育」,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참조.

24) 四方子, 「北壘島, 그 過去와 現在」, 『獨立新聞』, 1920. 1. 1 ~ 1. 13.

25) 桂奉瑀, 『꿈속의 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제12집, 1998, 171~173쪽).

26) 이상설은 수학의 제1인자로 칭송되었으며, 학계에 수학을 가장 먼저 수용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1909년 『中等數學教科書』를 저술하는 등 고등수학의 독보적 존재였다고 한다(『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1950, 『李相高(溥齋小傳)』 참조).

27) 윤병석,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35~36쪽.

짐을 근심하여 이의 개발을 주지로 한다고 보았다. 중요 직원으로는 이상설·이량·김동환만을 언급하고 이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資生은 이상설이 전담한다는 견해와, 분담하여 충당(이상설 5천원, 전공달·왕창동 5백 원, 김동환 3백 원, 홍창섭 1백 원)하였다는 정보를 함께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동환의 진술을 인용하여 자금은 결코 타의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교과는 산술·습자·독서·지리·법률 등 중학교과정으로서, 생도는 용정과 인근 각 촌락으로부터 내집해 와서 숙내 등에 기숙시켰는데 한 때 70여 명에 달할 때도 있었으나, 이상설이 떠난 후 점차 쇠미해져 현재는 20명 정도라고 하였다. 시국에 대한 직원의 태도에서는 황제의 강제퇴위 소식을 듣고 교직원과 나이든 생도는 모두 비분하였고, 그 중 왕창동은 의관을 찢어 땅에 던지며 강개하였다고 특기하였다. 서숙의 장래는 이상설이 떠나 생도가 점차 감소되고 자금도 부족하고 또한 시국의 변천에 따라 장래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머지않아 폐교하기로 하고 숙사의 매각을 바라고 있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는 말미에 설립 목적과 자금 출처 등에 있어 서숙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심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설이 浦鹽에 있는 전 군부대신 이용익과 상해에 있는 前京城駐節露國公使 파바로프를 왕복한 형적이 있는 설이 있다고 추기하였다. 또한 파출소가 설치되자 곧 자금 결핍을 명목으로 폐교하고 교직원들이 각자 귀향하려고 하는 상태로 다소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sup>28)</sup>

이로써 보면 망명길에 오른 이상설이 최초로 착수한 민족운동은 민족교육이었으며, 이는 곧 독립군을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일제와 무장 항쟁을 전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 2) 헤이그 사행

1907년 6월 15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주창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 이상설은 수석격인 정사로서 이준과 이위종을 부사로 하여 헤이그로 특파되었다.<sup>29)</sup>

광무 황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 목적은 위임장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황제는 ‘일본이 公法을 위배하며 비리를 자행하여 立約을 脅勒하고 우리의 外交大權을 강탈하여 우리의 列邦友誼를 단절케 하였다’고 지적하고, 특사들에게 外交大權을 用夏하고 열방우의를 夏修케 하라

28) 『日本外務省文書』 135, 「間島版圖에 關한 淸韓兩國紛議一件(5)」(1907. 9. 16, 統監府派出所長 齋藤季治郎 統派發第五號報告).

29) 이상설의 헤이그 사행과 관련하여 그가 망명 당시 이미 황제로부터 밀명을 받았다는 견해와, 망명지에서 밀명을 받고 합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이 논의에 대하여는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61쪽의 註 7 참조). 그런데 『大韓每日申報』(1907년 7월 9일자)에 이상설이 출발 전에 황제로부터 特使 印綬를 받았다는 기록은 전자일 가능성을 더해준다.

고 명하였다.<sup>30)</sup>

이상설은 4월 21일 한국을 출발하여 용정으로 온 이준과 합류하여 6월 중순 경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로 가서 이범진의 도움으로 니콜라이 2세를 만나 러시아 측의 지원을 약속받기도 하였다.<sup>31)</sup> 이곳에서 이위종과 합류하여 진용을 갖춘 특사단은 6월 24, 25일경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한국독립운동의 은인으로 평가되는 험버트도 3인의 특사들과 동행하지는 않았으나 광무 황제의 친서를 휴대하고 비슷한 날짜에 헤이그에 도착하여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특사들은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그들은 공식대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평화회의 의장인 러시아 대표 벨리도프 백작과, 주최국인 네덜란드 외무대신 후온데스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대표단에 동정을 표하면서도 본회의 참석은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특사들은 미국·프랑스·중국·독일 등 열국 대표단에게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소득을 거두지 못하였다.<sup>32)</sup>

본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특사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일본의 불법 부당한 침략상을 드러내고 한국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6월 27일 「控告詞」를 작성, 3인의 특사가 연명하여 평화회의 의장과 각국 대표단에게 보내고 신문에도 공표하였다. 「控告詞」는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잘 정리한 한말 외교의 역사적 문서로서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sup>33)</sup>

「控告詞」는 부속문서<sup>34)</sup>로서 을사늑약의 강요과정과 이후 일제의 각종 침략상을 조리 있고 생생하게 장문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문건은 을사늑약과 일제 침략에 대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당사자를 내세워 공식 입장을 표명한 최초의 외교 문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控告詞」는 우선 을사늑약의 강제 과정이 국제법을 위배하였으며, 외국과 우호적 외교관계를 단절케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의정부 참찬으로서 현장을 목도한 이상설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일본을 규탄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sup>35)</sup>

30) 이 위임장은 한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31) 권오돈, 「보재 선생과 독립운동」, 『나라사랑』 제20집, 89~90쪽.

32)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66~67쪽.

33)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67~85쪽.

34) 「控告詞」에서는 부속문서를 ‘일본인들이 행사한 모든 방법과 범죄행위의 개요문서’라고 그 성격을 설명하였다.

35) 일본 규탄의 세 가지 이유는 ① 황제 폐하의 재가없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에 무력을 행사하였다. ③ 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법률과 전통을 무시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이었다.

특사들과 험버트는 현지 언론인을 만나 「控告詞」를 전하고 신문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의 노력으로 『平和會義報』에 「控告詞」 전문이 게재되었다.<sup>36)</sup> 그리고 스테디의 협조로 『런던 타임스』나 『뉴욕 헤럴드』 등 유명 언론에도 보도될 수 있었다. 결국 특사들의 본 회의 참석은 일제의 방해와 열국의 외교적 외면으로 성사되지는 못하였으나, 구미 언론에서 우리의 입장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결실을 거두었던 것이다. 특사들의 활동은 7월 9일에 열린 각국 신문기자단의 國際協會에서도 빛이 났다. 이 자리에서 이위중은 유창한 프랑스로 「韓國의 呼訴(A Plea for Korea)」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다.<sup>37)</sup>

그러나 7월 14일 돌연히 이준이 순국하였다. 그의 사인은 한 때 자결 순국설이 있었으나, 자결이 아닌 '憤死'로 정리되었다.<sup>38)</sup> 7월 17일 이상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이준의 유해를 헤이그 아이큰다우 공동묘지에 가매장하였다.<sup>39)</sup> 현지 언론은 이준의 죽음을 '슬픈 종말'이라고 하였다.<sup>40)</sup> 결국 이상설은 특사의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지를 잃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구미 열강 순방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 3) 구미 순방 외교

1907년 7월 19일 경 이상설은 李瑋鍾·尹炳球·宋憲澍 등을 대동하고 영국 방문을 시작으로 구미 순방길에 나섰다. 이상설은 순방길에 나서기에 앞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자신들은 황제의 특명으로 한국이 결코 일본에게 獨立權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구미 각국에 알릴 것이라고 하며 사절의 임무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고 자평하였다.<sup>41)</sup> 이상설 일행의 구미 순방 외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권 행사였다.

36) 『Courrier de la Conference』는 영국 언론인 윌리엄 티 스테드(William T. Stead)가 편집자였는데, 「무슨 理由로 韓國을 제외시켰는가. 海牙 韓國 代表의 抗議」를 필두로 이준의 장례를 보도한 「韓國人의 葬禮」 등 특사들의 활동상과 주장을 비중 있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37) 『The Independent』 LXIII, 1907년 8월호, pp.423~426(尹炳爽의 앞책 재인용).

38) 당시 현지 언론은 이준의 사인을 뺨의 膿瘡 수술 후유증으로, 이동녕으로부터 사인을 들은 이시영은 丹毒으로 증언하였다. 1960년대 그의 사인을 조사한 문교부와 국사편찬위원회도 결론을 유보하였으나, 자결설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39)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1, 185쪽. 이상설은 당시의 슬픔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고고한 忠骨은 하늘을 푸르게 갈아내는데  
居然히 큰 禍가 눈앞에 떨어져  
나랏일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그대 먼저 죽으니  
이 사람 혼자 남아 흐르는 눈물이 배 안을 가득 채우는구나.

40) 『Haagsche Courant』, 1907년 7월 17일자(尹炳爽의 앞책 재인용).

또한 순방 외교는 헤이그 사행과 함께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설 일행은 영국을 거쳐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에 머물렀다.<sup>42)</sup> 9월 초 이상설은 이준의 정식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시 헤이그로 돌아왔다. 이후 일행은 프랑스 파리와 독일의 베를린을 방문하고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 러시아 수도 페테르스부르크로 가서 러시아의 지원을 호소한 뒤 다시 런던으로 가는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상설은 각국의 원수나 정치 실력자, 언론인 등을 만나 일제의 한국 침략의 잔혹상과 불법성을 설파하고 한국의 독립수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들은 극동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가 유지되기 위하여 한국이 네덜란드·스위스·벨기에와 같이 永世中立國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구미 열강이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sup>43)</sup> 헐버트는 뉴욕 헤럴드와 회견을 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sup>44)</sup>

이 같은 특사의 구미 순방 외교에 대하여 구미 열강국은 공식적으로는 자국의 이해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특사의 활동은 구미 열강국이 일제의 한국 침략의 실상을 여실히 알게 하고, 한국의 독립과 극동의 평화가 직결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설이 구미 외교활동을 벌이는 기간에 국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으며, 내정간섭을 위해 이른바 丁未七條約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명맥인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상설 자신은 헤이그 사행이 죄목이 되어 8월 9일 권석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기도 하였다.<sup>45)</sup>

1908년 2월, 이상설은 미국으로 건너가 1년 남짓 체류하며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에 대한 전기를 만드는 한편, 미국 조야를 상대로 독립 지원을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상설의 활동은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의 활동으로 미주 한인사회가 조국독립운동의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sup>46)</sup>

41)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27일자.

42) 이상설이 미국 대통령에게 면회를 요청하였을 때 미국은 ‘公禮’가 아니라 ‘私見禮’의 형식으로 만나겠다고 하였다는데, 면담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 같다(『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27일자).

43)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27일자 및 8월 27일자.

44) 『New York Herald』, 1907년 7월 22일자(尹炳奭의 앞책 재인용).

45) 『官報』, 1907년 8월 12일자.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헤이그 특사의 활동과 이준의 순국 이후 애국심이 분발되어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sup>47)</sup> 이상설은 미주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과 정비의 산파역을 하였다. 그의 미국 활동에서 맺은 결실로서 특기하여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1908년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열린 愛國同志代表會였다. 이 사실은 『海潮新聞』에도 보도되어 연해주 동포사회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려준다.<sup>48)</sup>

애국동지대표회의의 발기인으로 박용만·이승만·이관용 등 미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들이 표면에 나섰다. 이 대회와 주요 의제는 미국 내 각 지방의 여러 단체의 통합과 조국 독립운동에 대한 방략을 토의하는 것이었다. 이 대회는 그 뒤 미주 한인사회 통합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국면을 만들었다. 그 방안으로 내세운 근대산업의 진흥과 군대양성 문제는 이상설이 노령에서 전개한 독립운동기지 개척 문제와 동질의 것으로서 이상설의 영향을 입증한다.

또한 이상설은 미주 독립운동의 중추적 기구인 國民會 결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구체적 근거는 없으나, 이상설이 1909년 2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지방총회의 공동 결의로 국민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정재관과 함께 극동지역 특파원으로 파견된 것은 이 사실을 시사한다.<sup>49)</sup> 또한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간 뒤 국민회에서 그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군대양성과 독립운동기지건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상설 등 특사의 구미 순방 외교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나름대로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구미 순방 외교에 대해 정인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 두루 다녀 여러 強國을 살펴보니 보고 느낀 뜻이 더욱 높이 우뚝하네. 영국 런던에는 신사의 풍도가 정연하고 불란서 파리는 시민들의 기상이 늙름하구나. 骨髓에는 精微한 것 다 갖추고 皮毛에는 鎖尾를 남겼도다. 슬쩍 伊太利 羅馬를 지나 씩씩하게 독일을 禮訪했지. 미국은 나라 선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그 규모 시설은 저렇게 웅장할고. 이는 이목 밖에 일이다. 아마도 그 정성과 노력이 스스로 알뜰했겠지. 여러 나라의 輜旒를 취하여 내 나라의 터전을 굳히려는 도움이 될 터이다. 해 저문 날에 황망히 바라보니 우리 임금은 멀고 먼 저물에 막혀있구나. ...”<sup>50)</sup>

46)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09~110쪽.

47)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혜안, 2004, 84~85쪽.

48) 『海潮新聞』, 1908년 4월 16일자.

49)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03쪽. 이 때 이상설로 하여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공립협회 대표인 김성무와 전명운을 동반하고 俄領을 순회하라는 내용이 결의되었다.

### 3. 연해주 망명과 독립운동

#### 1) 독립운동기지건설

이상설은 망명 당시부터 독립운동기지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독립운동기지건설은 초기 독립운동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고 이 과제의 실천에 처음 착수한 인물은 이상설이었으며, 용정이 그 기지였다.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 온 이상설은 우선 韓民會長인 金學萬, 해조신문 주간 정순만 등 지역의 한인 지도자들을 규합하는 한편, 용정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대의 興凱湖(항카호) 주변의 密山府 蜂蜜山 일대를 독립운동 기지로서 주목하였다. 여기에는 미주 국민회의 자금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그는 李承熙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sup>51)</sup> 이해 겨울 이승희는 봉밀산 부근 기름진 땅 45方을 매입하고 1백여 한인 가구를 이주시켜 이른바 ‘韓興洞’을 개척하였고, 韓民學校도 세워 민족교육을 전개하였다.<sup>52)</sup> 이승희는 이곳에서 4년을 머무르며 기반을 수립하는데 힘썼다. 이상설은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지만 수시로 한흥동을 왕래하며 그 경영을 보살피는 한편 국내외 유지들에게 사람을 보내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상설의 密山府 독립운동기지건설은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光復軍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최후의 목적은 그곳에서 한인 청소년을 모아 근대적인 文武兼全의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광복군으로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이곳이 1920년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의 독립군들이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거둔 뒤 재기를 다짐하며 복상할 때 大韓獨立軍團을 편성하는 총결집지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이상설의 독립운동기지건설운동은 新民會의 독립운동 방략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연관성 또는 이상설 영향설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이다.<sup>53)</sup>

50) 鄭寅普, 『舊園文錄』(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77쪽).

51) 李承熙는 성주 출신 유생으로 을미사변 이래 일제 침략을 규탄하여 왔는데, 1908년 5월 국망이 예견되자 倭의 노예로 살수 없다며 망명하였다. 그는 7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문집(『韓溪遺稿』)이 알려주듯이 광종석과 함께 영남의 학맥을 대표하는 유림으로 평가된다.

52) 일제는 이 사실을 주목하였다. 즉, 間島總領事 永瀧久吉은 이 일대에 淸人 이주자는 증가하지 않으나 수천 명의 韓人이 이주하여 개척하고 있다고 하고 부근 상세도까지 첨부하여 외무대신에게 보고하였다(『日本外務省記錄』, 「明治四十二年十二月 同明治四十四年十二月 朝鮮人海外移住並ニ移住者ノ狀態取調ノ件」 참조).

53)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24~126쪽.

이로써 볼 때 이상설이 추구한 독립운동기지건설은 국망을 예견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계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 독립운동기지개척과 한인사회의 결속 등은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커다란 구도 하에 진행된 민족운동이었던 것이다.

## 2) 독립투쟁의 주도

독립운동기지건설을 이룬 이상설은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주도하였다. 그가 주도한 독립투쟁으로는 十三道義軍의 편성과 聲明會 결성, 대한광복군정부의 조직, 신한혁명단의 주도 등을 들 수 있다.

1910년 6월 21일 이상설은 이범윤, 이남기 등과 함께 노령 안에 있는 의병은 물론 국내의 의병까지 포함하는 통합군단의 편성을 위해 十三道義軍을 편성하였다. 도총재에는 유인석을 추대하였고, 彰義總裁(이범윤)·壯義總裁(이남기)·都總所參謀(우병열) 등의 직책을 두고 同義員으로 홍범도·이진룡·안창호·이갑 등을 추대하고 자신은 外交大員이 되었다.<sup>54)</sup>

이로써 연해주 안의 의병이 통합된 것이다. 十三道義軍은 국내까지 조직을 시도하였다. 고을마다 總裁·總領·參謀·總務·召募·糾察·通信 등의 직책을 두고 이를 道の 총재가 거느리고, 道の 총재는 다시 都總裁의 지휘를 받도록 되었다.<sup>55)</sup>

十三道義軍 편성에 참여한 이상설은 7월 28일자로 도총재 유인석과 연명하여 광무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의 내용은 십삼도의군의 軍備를 위한 군자금을 내탕금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과, 고종이 러시아로 망명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즉, 이상설은 상소문에서 고종이 러시아령으로 파견한다면 세계만방의 공론을 제창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민심도 鼓動시킬 수 있어 결국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이상설의 계획은 국내외의 정세와 고종의 성품으로 보아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었다.<sup>5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설이 망명정부의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상설의 독립운동 방법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10년 8월 들어 이상설은 외신을 통해 강제병합의 소식을 듣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의지를 불태웠다. 8월 23일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의 한인학교에서 한인대회를 열고 성명회를 조직한 것은 강제병합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었다.

聲明會는 ‘대한의 국민된 사람은 대한의 광복을 죽기를 맹세하고 성취한다’는 목적 하에 ‘일

54) 柳麟錫, 『毅菴集』, 毅菴 年譜, 行狀.

55) 柳麟錫, 『毅菴集』, 立義案, 立任案, 立軍案.

56)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29~131쪽

본의 죄를 성토하고 우리의 원한을 밝힌다(聲彼之罪 明我之冤)'라는 뜻에서 이름을 취하였다.<sup>57)</sup> 성명회는 취지문에서 결코 왜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열국 중 우리와 친교동맹을 체결한 바 있는 나라에 공명정대한 여론을 구하는 것이 第一急務라고 하며 동포들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 성명회 선언서의 말미에는 회원 8,624명의 서명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상설은 유인석·이범윤·김학만에 이어 네 번째로 서명하였다.<sup>58)</sup>

성명회는 일본 정부에 '국제공약에의 배신'을 책망하는 공한을 보내고, 각국 정부에는 합병 무효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상설은 각국 정부에 보내는 선언문을 직접 작성하였다. 청국 정부에 보낸 문서는 이상설이 초고를 작성(所草)하고 유인석이 가필이나 윤문(略加修潤)을 하는 정도였다.<sup>59)</sup> 그 내용은 열강들에게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고 일본의 침략상을 생생하게 고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열강들이 이 같은 특수사정을 국제법에 의해 판단하고 정의와 휴머니티의 원칙에 의해 행동하며 일본의 한국합병을 반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민족의 결연한 항일투쟁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 우리는 世界 속에서 大韓國의 이름을 간직하고 韓國民은 大韓民人이라는 지위를 결코 잃지 않고 간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의 과업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광복과 국권의 회복에 기필코 도달할 때까지 손에 무기를 들고 일본과 투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진정한 한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나라의 광복을 획득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sup>60)</sup>

그러나 9월 11일 성명회 활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까닭은 일본의 강력한 항의 제기와 주동 인물들의 체포 및 인도 요구에 러시아정부가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정부는 이상설, 이범윤 등 聲明會와 十三道義軍 대표 20여명을 체포 투옥하였다가 이상설 등을 니콜리스크로 추방하였다. 이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러시아정부의 조치로 인한 결과였으나, 그들은 이상설의 위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듬해에 곧 석방하였다.<sup>61)</sup>

57) 회명으로 '聲彼之罪 鳴我之冤'의 뜻을 따서 聲鳴會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韓國國民議會라 칭하기도 하였다.

58) 이 서명록은 1매에 77명씩 서명하여 총 112매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발표된 宣言文中 最長의 문서라 할 수 있다.

59) 이상설이 기초한 성명회의 각종 문서는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34~144쪽 참조.

60)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32~233쪽.

61) 金昌順·金俊燁, 『韓國共產主義運動史』,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 79쪽.

이상설은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국 이후 최초의 망명정부라 할 수 있는 大韓光復軍政府를 수립하였다. 이상설은 망명과 더불어 광복군 양성 계획을 세웠고, 이미 고종의 망명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 바 있기 때문에 대한광복군정부의 수립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62)</sup>

大韓光復軍政府는 한인의 시베리아 이민 50주년에 맞추어 수립되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투쟁해 온 시베리아 韓僑는 이를 기념할 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주최 측은 이 기회에 한민족이라는 관념을 강조하고, 자제들에게 교육과 사교의 확대를 통해 러시아인과 평등한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른 민족의 사례를 참고삼아 향후 50년간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sup>63)</sup> 특히 이 시기를 이용하여 민족의식을 높이고 광복군 군자금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실리에 밝았던 러시아는 곧 일본과 동맹국으로 제휴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한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大韓光復軍政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독립운동 단체였으나, 이렇다 할 구체적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말았다.

이상설의 독립운동의 무대는 러시아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大韓光復軍政府의 조직 이후 그는 1915년 3월경 상해에서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과 연합하여 新韓革命團을 조직하였다.<sup>64)</sup>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박은식·신규식·조성환·유동열 등으로, 이들은 국내외를 연결하여 광복군의 무장과 독립전쟁의 추진 방략을 협의하였다.<sup>65)</sup> 新韓革命團의 조직은 중국 관내 독립운동 발전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sup>66)</sup>

新韓革命團의 규칙과 취지서는 박은식이 작성하고 군자금은 中國革命團의 예에 따라 국내외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모금하기로 하였다. 본부는 북경에 두었는데 이상설이 본부장에 추대되었다. 이 단의 본부장으로 이상설이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해외독립운동 세력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을 알려준다. 부서는 재무·교통·외교로 나누었는데, 중국과 국내에 지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新韓革命團은 고종을 당수로 추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교부장 성낙형을 국내로 밀파

62) 大韓光復軍政府는 망명 정부가 아니라, 명칭 그대로 軍政府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趙東杰,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245쪽).

63) 『대한인 정교보』, 러시아 치타 대한인정교보사, 1914년 5월 1일.

64) 당시 이상설이 상해에 왔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65) 日本陸海軍省文書, 『大正 5年 6月 30日調 朝鮮人概況』, 18~22쪽.

66) 趙東杰,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104쪽.

하였다. 성낙형은 고종을 당수로 받들고 고종으로부터 중국 정부와 ‘中韓誼邦條約’을 체결하기 위한 신임장을 받아 오는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갔다. 이 조약은 중국과 한국의 망명정부는 물론 독일 황제의 인준을 거치도록 계획되었다. 그들이 이처럼 고종을 받든 까닭은 袁世凱가 세력을 회복하여 帝位에 오를 형세이고, 독일이 帝政이기 때문에 이들의 후원을 끌어내는 데는 共和政體보다 帝政이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67)</sup> 이런 정황은 정치 외교적 계산 외에도 고종과 이상설의 관계와 이미 고종의 망명을 추진한 바 있던 이상설의 독립운동 방략을 감안하면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성낙형은 고종과 왕자 李垞과 연락을 취하며 활동하였으나, 일제에 발각되어 피체되고 말았다. 이로써 이른바 1915년 ‘保安法違反事件’이 터진 것이었다. 그런데 신한혁명단의 성격을 대한광복군정부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즉, 당시 압수된 신한혁명단 문서를 토대로 대한광복군정부를 대외적으로 신한혁명단으로 불렀던 것이나, 단원들이 일제의 심문에 끝내 비밀을 지켰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sup>68)</sup>

이상설의 일련의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과 주도는 그의 불굴의 독립의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십삼도의군, 성명회, 대한광복군정부, 신한혁명단으로 연결되는 그의 독립운동은 국제정세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열강의 지원을 끌어내어 끝내 독립을 戰取한다는 일맥하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한인 단체의 조직과 주도

이상설은 니콜리스크로 유배되었다 풀려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 와서 1911년 12월 19일 勸業會를 조직하고 기관지로 『勸業新聞』 발행 업을 주도하였다. 권업회의 표면상 성격은 韓僑의 산업을 권장하고 교민의 직업과 일터를 알선하며 교포의 교육을 보급하는 등 한인사회를 위한 경제 단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외적인 활동의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사실상은 항일투쟁의 중심기관적 성격을 지니며 시베리아 한인 개척과 항일투쟁사에서 가장 커다란 업적을 남긴 기관이라 하겠다.<sup>69)</sup>

이상설은 권업회의 창립총회에서 의장에 피선되었다.<sup>70)</sup> 그는 또한 중요 직책인 의사부 의장

67)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64~166쪽.

68)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68쪽. 그러나 여기에서도 해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바와 같이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견해이다.

69)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48쪽.

70) 『勸業新聞』, 1911년 12월 19일자.

에 선임되었을 뿐 아니라, 회무를 집행하는 회장을 직접 맡았으며 때로는 金道汝나 최재형에게 넘기기도 하였다.<sup>71)</sup> 이에 동참한 신채호는 창립총회에서 선전부장에 피선되었으며 『勸業新聞』의 발행을 맡기도 하였다.

권업회는 경제적으로는 한인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권업 문제와, 정치적으로는 조국 독립의 대업을 달성하는 항일투쟁의 노선을 함께 수행하였다. 따라서 권업회는 기관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계몽시키는 한편 한인 거주지마다 지회와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한인사회를 조직화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런데 주요 간부들의 지역별 면면을 보면 서울파·평양파·함경도파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로써 보면 권업회는 곧 계파간 연합조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72)</sup>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인물별, 출신지역별, 단체별로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73)</sup> 권업회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종호가 이상설과 정재관을 이용한다고 하여 이들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특히 이상설은 주도적 인물의 한 사람이었던 이종호와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이에 정재관은 1912년 5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다. 또한 1912년 9월에는 평안도파인 김치관과 박영갑 등을 일본 밀정으로 공격하여 평안도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1913년 1월에는 이종호 계열이 회를 장악하여 서울파를 몰아내고자 하였다.

한편 이상설은 신채호의 뒤를 이어 『勸業新聞』의 주필겸 사장을 맡았다. 그는 일찍이 ‘창희’라는 필명으로 『新韓民報』 등에 글을 게재해 왔는데, 1913년 국치일을 맞이한 특집호에 게재한 「이날을」이라는 기사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sup>74)</sup>

이 같은 지방색 등의 대립 속에서 이상설은 1913년 말에 일제의 밀정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 때 그는 아무 변명도 없이 모든 공직을 내놓고 하바로프스크로 이동하였다. 이상설은 北道人이든 南道人이든 가리지 않고 大人답게 권업회를 이끌어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전한다. 이 무렵 그가 남긴 비장한 시는 그의 심경을 잘 알려준다.<sup>75)</sup>

71) 이상설은 이후 감사원(1912년 4월 4일 제1회 총회), 의장(1912년 8월 12일 하반기 정기총회), 고본단총무(1912년 12월 30일 본회 임원 선거), 권업신문 사장겸 주필(1913년 10월 6일 특별총회) 등 권업회의 주요 직임을 계속하여 맡았다(『勸業新聞』, 1912년 12월 19일자, 1913년 1월 19일자, 1913년 10월 26일자 등).

72)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126쪽.

73) 『勸業新聞』, 1913년 11월 9일자. 여기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 각기 입을 빗죽거리며 눈을 흘겨보니 알지 못거라.”라고 표현하였다.

74) 『勸業新聞』, 1913년 8월 29일자.

75) 姜相遠의 『李相高先生略歷』에 의하면 그는 “泣國泣家又泣己”라는 시를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권업회의 표면적 활동은 1914년 8월 창설된 지 3년 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중지되고 말았다. 그 까닭은 러시아 당국이 전시정책을 써서 일체의 정치활동과 사회활동을 엄단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러시아 당국에 권업회와 권업신문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과의 관계가 돈독해 진 러시아 당국은 이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종호를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권업회는 니콜리스크와 우수리스크 등 연해주 각지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다.<sup>76)</sup>

### III. 後人 論贊에 나타난 評價

#### 1. 인품에 대한 평가

이상설의 인품에 대하여는 유족인 李完熙의 「傳記草稿」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그는 이상설의 천성을 ‘정열적이고 다정다감’하다고 하고 生養父母에게 차별 없이 효성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그가 14세의 소년시절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의 호천애곡하는 정경은 옆에서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형제애가 놀라웠으며, 朋友之交의 신의가 각별함은 물론 사제간에는 정의와 예절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고 하였다. 곧 그는 이상설의 인품을 ‘至誠의 人格’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그의 인품을 집약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 선생의 일면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고 仙師와도 같이 단정하였으나 내면으로는 闊達自在하여 술을 즐겨 마시며 벼들과 담론하기를 즐겨했고 재조 있는 성격이 뛰어나서 모든 고난에도 용기 백출하여 후배를 격려하며 새로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듯이 궁할 줄을 모른다. 그의 이 같은 禪脫한 사상과 到輿한 이념은 모든 일에 남을 앞세우고 공을 남에게 미루므로 동지와 侍從者의 경모를 받으며 그 숭고한 인품의 眞面目이 많은 인물을 추종케 하였다. ...”<sup>77)</sup>

정인보도 그의 인물됨을 칭송하였다. 그는 이상설이 교민사회에서 스스로 중책을 맡아 신들을 매고 다녔으나, 높은 벼슬과 녹은 물리치고 이웃의 구휼에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조완구는 이상설의 인품을 ‘天賦篤厚’라고 하였다.<sup>78)</sup> 이로써 볼 때 그의 인품은 才勝薄德이 아니라

76)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178~179쪽.

77) 「溥齋 李相高先生傳記抄」라고도 하는 이 자료의 원문은 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87~189쪽 참조.

儒理에 깊은 탐구와 禪典의 두터운 窮理를 다한 才德兼全의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79)</sup>

그러나 그가 독립운동 시기 ‘기호와 수령’으로의 행적을 그의 평생 역사로 보아 결점이라고 지적한 계봉우의 견해가 있다. 즉, 그가 ‘기호와 수령’으로서 기호 출신 인사들을 많이 배치했던 것은 주의나 정견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봉건적 영웅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수령 다툼이라는 것이다. 계봉우는 이상설의 그러한 구체적 사례로 그가 권업신문과 대한광복군정부의 일을 맡았다가 곧 사직한 사실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계봉우는 이에 대하여 이상설만의 과실이 아니라 서북사람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80)</sup>

사실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지역 분파가 심했음은 반성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81)</sup> 그러나 이상설의 경우는 공명과 이익을 취하려는 인격적 결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다른 사람을 민족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 공도 그들에게 돌리는 여타의 민족운동의 사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파당과 분파주의에 극성이었던 세력에 대한 자기방어와 민족운동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2. 학자로서의 평가

일찍이 이상설은 율곡 이이를 祖述할 사람으로 지목되었다. 李建昌은 殿試에 급제한 이상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진실로 이상설은 뒷날 대성하고 창무할 것을 막지 않는다면 이는 곧 율곡 이이의 道가 행해짐이요, 그것은 곧 나라의 부강이 될 것이요, 백성의 복지가 될 것이요, 선비의 영화가 될 것이다. 어찌 작게 이상설 혼자만의 후이라 하리오.”<sup>82)</sup>

박은식은 그의 학문에 대하여 “博於漢學 兼通西文 才望冠一時”라고 하였다.<sup>83)</sup> 특히 이상설과 함께 밀산부에서 독립운동 기지로서 한홍동을 건설했던 영남의 거유 李承熙는 그의 높은 학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78) 鄭寅普, 『詹園文錄』(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77쪽).

79) 李完熙, 「溥齋 李相高先生傳記抄」(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88~189쪽).

80) 桂奉瑀, 『꿈속의 꿈』, 171~173쪽.

81) 趙東杰,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35~36쪽.

82) 李建昌, 「與李殿試相高書」(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83~284쪽).

83) 朴殷植, 『韓國痛史』, 제3편 제46장.

“公은 옛 것에 넓고 오늘 것에 능통한 세상의 재목이다. 어려서 新學을 배워 이미 만국의 일에 통달하였는데 舊學에 있어서도 博洽하고 通透하여 九經百家를 말하듯이 記誦하여 선생을 대할 때 항상 性理學을 講說하였고 그 類가 대개 부합하였으므로 더불어 토론하여 旅苦를 잊기에 이르렀다”<sup>84)</sup>

이상설과 죽마고우로서 신구학문을 함께 수학하고 관직생활도 함께 한 李範世는 그가 동서양의 학문에 능통하여 학식이 풍부한 친구이자 스승이었다고 하였다.<sup>85)</sup> 그에 대한 정인보의 평가는 종합적이다.

“... 뛰어난 재주는 아예 거룩한지라. 일찍 젊어서 博爲達識으로 드날렸지. 文章은 고내와 鯨鯢를 거꾸러뜨릴 만하고 성리학은 그 根屈을 뚫었네. 깊은 생각은 曆學과 算學을 窮達하고 醫學은 無不通이요 역사와 지리는 더욱 연구가 깊었네. 통역 정도는 오히려 얕은데 속한지라 스승 없이 영어를 능통하다. 朝廷에선 그를 물에 뜬 돛대로 생각했고 선비들은 柱石으로 의지했다. 그를 發憤하여 쌓이고 쌓인 弱勢를 돌이키고 그는 다 끊어져가는 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였구나. ...”<sup>86)</sup>

이상설의 학문에 대한 칭송은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인 管雪齋는 그가 신구학문에 모두 능통하였고 특히 수학과 법률에 조예가 깊었다고 하였다.<sup>87)</sup> 베델은 이상설의 학문이 ‘大韓學問學의 第一流로서 동서 학문에 능통하고 밝아서 性理文章과 정치, 법률, 산술학에 특히 학식이 풍부하였다고 하였다.<sup>88)</sup>

이로써 보면 이상설에 대한 후인 논찬은 국내외인을 막론하고 모두 그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4) 李承熙, 『韓溪草稿』 7(국사편찬위원회, 1980, 549쪽).

85) 李範世, 「哀溥齋」(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90~191쪽).

86) 鄭寅普, 『蒼園文錄』(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77쪽).

87) 管雪齋, 「韓國志士小傳 李相高」(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87쪽).

88) Ernest T. Bethell, 「讀李參贊疏」(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93쪽).

### 3. 독립운동가로서의 평가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상설을 평한 후인 논찬 가운데에는 여타 인물과 비교하거나, 그가 해외 한인사회의 지도자로서 한인들을 규합하고 화합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후손인 이완희는 정치가로서의 이상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政治家로서의 선생은 본시 物慾이나 榮達에 뜻이 없었던 만큼 行政에 있어서도 불의를 남달리 미워하여 그 行跡은 公平無私하였고 열렬한 愛國心은 오히려 名利를 草芥視한 것으로 미루어 만일 平和時였다면 그의 經綸을 펴고 賢相으로서 後世의 功德을 많이 남겼을 것을 疑心치 않는다. ...”<sup>89)</sup>

한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그의 민족운동선상에서의 위상을 부각하고자 하는 논찬도 있다. 이런 종류의 논찬은 타인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 중심적 지도자로서의 이상설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 石吾 李東寧 先生도 友堂 李會榮 先生도 意志로나 智謀로나 堂堂한 指導者이시지만 그 두 분은 처음부터 肅心이 되지 않았다. 그 두 분은 오직 溥齋 先生이 生存해 계시어야 그 두 팔과 같은 활동을 하실 수 있던 것이다. 만일 溥齋 先生이라는 腦頭가 없다면 그 두 팔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實로 머나먼 北쪽나라 하바옴스크에 수많은 同志들이 모여든 것은 오직 溥齋 先生이 계심으로 하여서 선생의 指導로 光復의 大業을 成就시켜 불가 함이었는데 이제 선생이 영원히 가시었으니 다시 누구를 바라고 이 巨大한 大業을 이룩할 것이냐. ...”<sup>90)</sup>

특히 이상설을 존경하였던 안중근의 논찬은 극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중근은 1909년 11월 29일 여순감옥에서 일본 경시의 제3회 심문 시에 “李範允과 같은 인물 萬人을 모아도 이상설 한 분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진술을 한 바,<sup>91)</sup> 이는 이상설에 대한 절대적 존경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즉, 안중근이 러시아 한인사회의 거물급 인사인 이범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같이 평가한 것은 이상설에 대한 절대적 존경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89) 李完熙, 『溥齋 李相高先生傳記抄』(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88쪽).

90) 權五惇, 『溥齋小考』(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86쪽).

91) 『安重根獄中評』(尹炳奭, 『增補李相高傳』, 189쪽).

안중근의 이상설에 대한 절대적 평가의 기준은 그의 지론인 東洋平和論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이상설과 같은 동양평화주의를 지닌 인물이 희귀하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 1909년 12월 2일에는 다음과 같은 옥중 논찬을 남겼다.

“... 이상설은 재사로서 法律에 밝고 算術에 통달하고 英佛日語에 통한다. 사람은 地位에 따라 心持를 달리하는 것이지만 崔益鉉과 許蔭 등에 비하여 勇猛한 氣像은 혹 적을지 모르나 지위를 달리 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世界大勢에 통하고 愛國心이 강하고 教育發達을 도모하여 國家百年大計를 세우는 사람은 同人일 것이다. 또한 東洋平和主義를 갖는데 있어서는 同人과 같이 親切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sup>92)</sup>

#### IV. 맺 음 말

본고는 이상설의 민족운동과 그에 대한 후인들의 논찬을 정리한 것이다. 이상설의 민족운동은 그가 활동한 시기와 지역,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제1기;망명 이전의 국권회복운동, 제2기; 헤이그 사행과 구미 순방 외교, 제3기;연해주 망명과 독립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설은 1904년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시작으로 국권회복운동에 나섰다. 그는 토지는 국가의 근본이고 재물은 민생의 근본이므로 우리의 이권을 일본에 양여하는 것은 곧 매국이며 망국의 길이라고 정확히 인식하였다. 그의 일본 제국주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 강제가 있을 때에도 그는 가장 논리정연하고 강렬한 어조로 을사늑약 반대 및 파기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皇室非滅國之利器’라고 몰아붙이고 심지어 황제에게 殉社할 것을 권하는 등 가장 강렬하게 투쟁하였다. 그의 투쟁은 유생의 투쟁을 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촉발하였다. 당시 그가 보안회를 계승한 대한협동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구한말 국권회복운동 시기에 그의 위상을 잘 알려주는 것이다.

망국을 예견한 그는 본격적인 민족운동을 위해 1906년 4월 망명하여 북간도 용정에 정착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먼저 서전서숙을 건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장차 광복군을 양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었다.

1907년 6월, 그는 정사로서 이준, 이위중과 함께 헤이그 사행을 하였다. 그는 다른 특사들과

92) 『安重根獄中評』(尹炳奭, 『增補李相高傳』, 292쪽).

함께 열강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본회의에 입장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발표한 「控告詞」가 구미 언론에 발표되어 일제의 침략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 지원을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거둔 소득이었다. 이준의 순국과 회의 종료로 말미암아 헤이그를 떠난 그는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미국 등지를 순회하며 외교활동을 펼쳤다. 특히 그의 활동은 미주 한인사회가 독립운동을 위한 체제로 구축되어 국민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곧 헤이그 사행과 연이은 구미 외교 순방은 그가 주축이 되어 전개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권 행사로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09년 블라디보그토크로 돌아 온 이상설은 본격적인 독립운동기지건설운동에 착수하였다. 그는 이승희와 함께 밀산부에 한흥동을 일궜다. 신민회의 운동방략과 일치하는 독립운동기지건설은 1910년대 최대의 과제였는데, 이상설이 최초로 착수하였고 마침내 결실을 거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그가 주도한 십삼도의군 편성과 성명회 결성, 대한광복군정부의 조직, 신한혁명단의 주도 등은 1910년대의 독립운동 방략과 실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설이 주도한 민족운동은 때로는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가장 큰 시련은 국제관계와 정세의 변동에 따른 러일관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러시아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일이었다. 1910년 그가 니콜리스크로 추방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또 하나는 한인사회 내의 계파간 대립과 갈등이었다. 1913년 그가 일제의 밀정으로 몰려 하바로프스크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애썼다. 따라서 그를 ‘기호와 수령’으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이상설이 민족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만큼 그에 대한 후인들의 논찬은 매우 풍성하다. 안중근·박은식·정인보·장석영·조성환·조완구·황현 등 저명한 독립운동가와, 李範世·李重夏·李建昇·李建芳·李喜鍾·安瀾·李明祥·管雪齋 및 베델·헨버트 등 외국인을 포함하여 많은 인물들이 그에 대한 논찬을 남겼다. 논찬들은 대부분 이상설의 인품이나, 학자로서 또는 독립운동가로서 최대, 최상의 평가를 내리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상설은 시간적으로는 한말의 국권회복운동과 1910년대의 해외독립운동을 주도하였고, 공간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주, 남북만주와 연해주 일원의 광역을 무대로 하였으며, 방략상으로는 계몽운동과 무장투쟁을 병행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과정과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과 조국을 위해 고뇌하고 투쟁한 대표적인 실천적 지성으로 평가하여 마땅할 것이다.